

영광군, '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

가축 사육환경 개선·악취발생 저감 등 실천하는 우수 농가 육성 사육밀도·소독시설 설치 등 13개 항목 평가 70점 이상 획득해야

영광군은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

을 말하며, 이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

원에서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 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 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고 올해 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

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회덕 유통축산과장은 "지역 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필수"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작년 지역 농산물 1112톤 수출...매출 11억 원

무안군은 지난해 양파와 마늘 등 지역농산물 1,112톤을 수출하여 11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을 해외 수출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 영농법인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농가와 업체에 수출물류비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다.

관료개척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양파 792톤, 마늘 120톤, 버섯 91톤, 양배추 63톤, 단호박 36톤, 김 10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와 대만, 홍콩이며 전체 수출물량의 91%를 차지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에는 무안 김과 팽이버섯을 수출했다.

앞으로 군에서는 관내 농협과 13개 통합마케팅 조직에 대하여 기술지도와 수출지원 등을 통해 매출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무안군, 청년후계농 지원사업 신청 접수

무안군은 오는 27일까지 청년창업형후계농(이하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경영인 최종 선정자는 최대 3억 원의 융자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자금은 농기구입, 축사 등 시설신축, 가족임식, 농기계 및 화물자동차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년후계농의 경우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착지원금은 생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의 경우 만 18세부터 40세까지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포함)이며, 후계농경영인 지원사업은 만 18세부터 50세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항구포차, 한시적 자율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실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목포항구포차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앞으로 2주간(1.18. ~ 1.31) 한시적으로 자율 운영할 예정이다.

목포항구포차 운영협약서에는 기상 특보발령 등을 제외하고 평상 시 1/2 영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등에 적극 동참하고 방문객 밀집에 따른 위험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자율 운영 중이다.

앞서 목포항구포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임시 휴업을 실시했다. 이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포차 운영협의회 결정으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자율 운영을 실시했다. 목포항구포차는 지난해 6월 개장 이후 목포 앞바다와 유달산의 풍광 및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중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여파로 이용객이 줄어들어 현재는 일부 운영자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목포항구포차가 멋진 풍광을 한 눈에 담을 수 있고 인대로 부담이 없는 등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시와 운영협의회는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시설, 홍보 및 운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낭만항구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정수기자

목포시, 수돗물 탁수현상 사과·대응 시스템 점검

목포시가 최근 발생한 수돗물 탁수 현상에 사과하고, 대응 시스템을 점검한다.

목포시는 19일 "최근 수돗물 탁수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께 먹는 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울러 불편

을 감내하고 질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평상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용수공급 및 탁도가 개선돼 공급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신안군, '입식테이블 집중지원 코로나19 예방' 이어져

업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전체 업소 90% 이상



신안군은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객, 노약자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관내 일반음식점(위생업소)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 중에 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은 기존 업소와 신규업소에 입식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예산 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업소 362개소 중 147개소에 1,715개의 입식 테이블이 설치되도록 지원, 기존에 입식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던 184개소를 합하면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업소는 전체의 90%이상이다.

또한 신안군은 위생업소 26개소에 2억8천만원의 시설 개선 자금을 투입해 노후된 화장실, 주방, 영업장, 간판 등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다.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다. 신안군이 그동안 추진한 입식테이블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이 식품위생업소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식탁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의 방역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에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전통시장 '코로나 클린 존(Clean Zone)'만들기

관내 전통시장 휴장 대신 방역 및 현장 점검 강화 활동

영암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휴장 조치 대신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고자 간간힘을 쓰고 있다.

군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대해 전문방역업체 용역을 통해 장날 전일과 장날 폐장 후 방역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출입구에 군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및 계도 활동을 펼

치고 있다. 영암군은 군민들이 필때면 마트보다는 야외 전통시장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시장 상인과 이용객과의 접촉이 많은 이용객 도우미'나르미'운영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통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의 장



기화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전통시장 방문객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